

## 가류교

구불진 모양으로 연못을 건널 수 있는 징검돌의 이름은 ‘가류교’(숨겨진 용의 다리)라고 합니다. 가류교는 징검돌이 놓여진 위치가 용의 구불거리는 등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류교를 건너고 있다면 용을 닮은 듯한 징검돌의 배치와 발아래 수면에 비치는 하늘과 구름의 모습에서 마치 용의 등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재는 교토의 중심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 가모가와강의 다리(산조 대교와 고조 대교)를 지탱했던 교각을 재이용한 것입니다. 16 세기에 건설된 산조 대교와 고조 대교는 자동차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다리로 교체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미 가공된 석재를 재이용하는 방법은 헤이안 신궁의 니시 신엔, 나카 신엔, 히가시 신엔의 설계를 맡았던 정원 작가, 7 대 오가와 지헤에의 작품에도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